



보도	2023.12.6.(수) 조간	배포	2023.12.5.(화)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김재갑	(02-3145-8050)
		담당자	수 석	김 흠	(02-3145-8051)

'23.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 은행지주회사(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DGB, BNK, JB) 및 은행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아닌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토스) 기준 (이하 "국내은행")

1. 자본비율 현황

□ '23.9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9%, 14.26%, 15.56% 및 6.60%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 (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 (은행지주는 미도입)

○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23.6월말 대비 각각 0.07%p, 0.10%p, 0.15%p 하락

- 분기순이익 등으로 자본이 증가(+4.5조원, +1.3%)하였으나, 대출 증가 등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50.0조원, +2.3%)한 데 기인

▶ (총자본: +4.5조원, +1.3%) 연결분기순이익 등으로 보통주자본 증가(+4.8조원), 신증자본증권 순발행 등으로 기타기본자본 증가(+0.1조원), 후순위채 자본인정액 감소 등에 따른 보완자본 감소(△0.4조원)

▶ (위험가중자산: +50.0조원, +2.3%) 대출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 증가(+47.9조원), 이익 및 내부 운영리스크 손실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가중자산 증가(+3.4조원), 금리·외환 포지션 감소 등에 따른 시장위험가중자산 감소(△1.3조원)

○ 단순기본자본비율의 경우 기본자본 증가율(+4.9조원, +1.5%)이 총위험 노출액 증가율(+34.2조원, +0.7%)을 상회함에 따라 0.05%p 상승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현황

(단위 : %, %p)

항 목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6월말 (a)	'23.9월말 ^o (b)	변동 (b-a)
보통주자본비율	12.45	12.99	12.61	13.06	12.99	△0.07
기본자본비율	13.47	14.18	13.91	14.36	14.26	△0.10
총자본비율	15.00	15.53	15.29	15.71	15.56	△0.15
단순기본자본비율	6.41	6.48	6.20	6.55	6.60	+0.05

□ '23.9월 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 포함)을 상회*

* 토스뱅크의 경우 '23년말까지는 바젤 I 적용으로 완충자본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미적용

○ 총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회하거나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한 6개 은행(케이, 수협, SC, BNK, 농협, 하나)은 전분기말 대비 총자본비율이 상승

○ 총자본이 소폭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폭이 큰 11개 은행*은 총자본비율이 하락

* 카카오, 토스, 신한, 산업, DGB, 수출입, KB, 씨티, JB, 기업, 우리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

(단위 : %)

총 자 본 비 율	16.0 이상			KB(13.70,15.49,16.76,6.68) 농협(13.18,14.79,16.13,5.16)	카카오(29.52,29.52,30.67,10.40) 씨티(26.82,26.82,27.87,11.88) SC(16.13,17.15,20.63,5.14)
	15.0 이상		신한(12.90,14.54,15.60,6.32) 하나(12.75,14.27,15.27,5.69) 우리(12.15,14.15,15.72,5.66)		
	14.0 이상	기업(11.52,13.15,14.95,6.49)	JB(12.45,13.69,14.48,7.01)	수출입(13.13,13.13,14.78,10.35)	
	14.0 미만	BNK(11.55,12.82,13.54,6.26) 수협(11.45,12.84,13.89,6.32) DGB(11.10,12.48,13.80,6.02) 토스(- ,9.52,10.84,4.23)	케이(12.73,12.73,13.91,5.41) 산업(12.56,12.56,13.75,10.12)		
		12.0 미만	12.0 이상	13.0 이상	15.0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 괄호 안은 (보통주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단순기본자본비율)

** 토스뱅크는 바젤 I 을 적용하여 바젤III에 대응하는 항목에 기재(바젤 I 자기자본은 바젤III 총자본에, 바젤 I 기본자본은 바젤III 기본자본에 기재)하며 보통주자본비율은 산정하지 않음

2.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3.9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

* 보통주자본비율 추이(%) : ('21말) 12.99 → ('22말) 12.61 → ('23.6말) **13.06** → ('23.9말) **12.99**

기본자본 비율 추이(%) : ('21말) 14.18 → ('22말) 13.91 → ('23.6말) **14.36** → ('23.9말) **14.26**

총 자본비율 추이(%) : ('21말) 15.53 → ('22말) 15.29 → ('23.6말) **15.71** → ('23.9말) **15.56**

- 다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국 경기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자본여력을 확보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은행이 충분한 손실흐수능력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 차주의 신용위험 증가가 은행의 부실 및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은행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의무 부과('24.5월~, 1%),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여력을 갖추도록 유도

< 참고 >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자은행+비지주은행)의 자본비율 현황

(단위 : %, %p)

구분	항 목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6월말 (a)	'23.9월말 ^p (b)	변동 (b-a)
은행 지주 (8개)	보통주자본비율	11.93	12.73	12.59	12.85	12.83	△0.02
	기본자본비율	13.19	14.26	14.33	14.55	14.50	△0.05
	총자본비율	14.63	15.58	15.61	15.79	15.68	△0.11
	단순기본자본비율	5.56	5.64	5.63	5.94	6.00	+0.06
은행 (20개)	보통주자본비율	13.83	13.99	13.51	14.27	14.19	△0.08
	기본자본비율	14.48	14.63	14.12	14.90	14.80	△0.10
	총자본비율	16.52	16.49	16.01	16.79	16.61	△0.18
	단순기본자본비율	6.49	6.38	5.95	6.28	6.33	+0.05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단위 : %, %p)

은행명 (자은행)	'23.6월말(A)				'23.9월말 ^P (B)				변동(B-A)			
	보통주 비율	기본자본 비율	총자본 비율	단순기본 자본비율	보통주 비율	기본자본 비율	총자본 비율	단순기본 자본비율	보통주 비율	기본자본 비율	총자본 비율	단순기본 자본비율
신한지주	12.99	14.83	15.98	6.40	12.90	14.54	15.60	6.32	△0.09	△0.29	△0.38	△0.08
신한은행	14.63	15.76	18.39	5.54	14.64	15.73	18.19	5.57	0.01	△0.03	△0.20	0.03
제주은행	13.49	15.16	16.74	6.06	13.73	15.39	16.98	6.21	0.24	0.23	0.24	0.15
하나지주	12.81	14.22	15.24	5.59	12.75	14.27	15.27	5.69	△0.06	0.05	0.03	0.10
하나은행	15.72	15.92	17.79	5.30	15.56	15.75	17.47	5.39	△0.16	△0.17	△0.32	0.09
KB지주	13.80	15.64	16.99	6.60	13.70	15.49	16.76	6.68	△0.10	△0.15	△0.23	0.08
국민은행	15.26	15.88	18.45	5.78	15.26	15.85	18.36	5.87	△0.00	△0.03	△0.09	0.09
우리지주	11.97	14.06	15.73	5.51	12.15	14.15	15.72	5.66	0.18	0.09	△0.01	0.15
우리은행	13.42	14.38	16.42	5.06	13.55	14.26	16.22	5.12	0.13	△0.12	△0.20	0.06
DGB지주	11.26	12.78	14.13	6.08	11.10	12.48	13.80	6.02	△0.16	△0.30	△0.33	△0.06
대구은행	14.01	15.30	17.65	6.40	13.67	14.59	16.80	6.24	△0.34	△0.71	△0.85	△0.16
BNK지주	11.44	12.53	13.32	6.26	11.55	12.82	13.54	6.26	0.11	0.29	0.22	0.00
부산은행	14.74	15.48	16.41	6.34	14.91	15.63	16.37	6.28	0.17	0.15	△0.04	△0.06
경남은행	12.82	13.67	14.58	5.97	12.69	13.51	14.34	5.94	△0.13	△0.16	△0.24	△0.03
JB지주	12.29	13.81	14.60	7.03	12.45	13.69	14.48	7.01	0.16	△0.12	△0.12	△0.02
전북은행	13.73	13.79	14.49	6.64	13.51	13.57	14.27	6.65	△0.22	△0.22	△0.22	0.01
광주은행	15.15	15.15	15.69	6.37	15.37	15.37	15.94	6.45	0.22	0.22	0.25	0.08
농협지주	13.13	14.67	15.95	5.04	13.18	14.79	16.13	5.16	0.05	0.12	0.18	0.12
농협은행	16.08	16.77	18.67	4.80	15.98	16.98	18.96	4.91	△0.10	0.21	0.29	0.11
SC은행	16.04	17.02	20.39	5.03	16.13	17.15	20.63	5.14	0.09	0.13	0.24	0.11
씨티은행	26.96	26.96	28.06	11.31	26.82	26.82	27.87	11.88	△0.14	△0.14	△0.19	0.57
산업은행	12.90	12.90	14.11	10.05	12.56	12.56	13.75	10.12	△0.34	△0.34	△0.36	0.07
기업은행	11.46	13.13	15.05	6.33	11.52	13.15	14.95	6.49	0.06	0.02	△0.10	0.16
수출입은행	13.41	13.41	15.07	10.58	13.13	13.13	14.78	10.35	△0.28	△0.28	△0.29	△0.23
수협은행	11.23	12.62	13.62	6.23	11.45	12.84	13.89	6.32	0.22	0.22	0.27	0.09
케이뱅크	12.35	12.35	13.54	5.30	12.73	12.73	13.91	5.41	0.38	0.38	0.37	0.11
카카오뱅크	30.90	30.90	32.06	10.71	29.52	29.52	30.67	10.40	△1.38	△1.38	△1.39	△0.31
토스뱅크	-	10.37	11.69	4.36	-	9.52	10.84	4.23	-	△0.85	△0.85	△0.13
국내은행**	13.06	14.36	15.71	6.55	12.99	14.26	15.56	6.60	△0.07	△0.10	△0.15	0.05
(8개 은행지주)	12.85	14.55	15.79	5.94	12.83	14.50	15.68	6.00	△0.02	△0.05	△0.11	0.06
(20개 은행)	14.27	14.90	16.79	6.28	14.19	14.80	16.61	6.33	△0.08	△0.10	△0.18	0.05

* 토스뱅크는 바젤 I 기준을 적용(바젤 I 기준 자기자본비율→바젤Ⅲ기준 총자본비율, 바젤 I 기준 기본자본비율→바젤Ⅲ기준 기본자본비율에 기재하고 보통주자본비율은 미산정,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경영지도비율 미적용)

** 8개 은행지주 및 9개 비지주은행